

서 평

동남아역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

조 흥 국

Anthony Reid,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Vol. 1: The Lands below the Wind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8.

역사는 다양한 인간삶과 그 구조들이 횡적으로 종적으로 얽혀 있는 시간적 흐름이다. 그 중 어느 부분만을 떼어내어 한 지역의 역사를 보려고 하면 전체의 모습을 그릴 수 없다. 종래 동남아 지역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역사서술은 대부분 토착 지배계층의 역할과 서양인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왕조사적인 혹은 식민지통치사적인 성격을 띠어 왔다. 이에 비해 1988년에 출판된 앤써니 리드의 『1450-1680 교역시대의 동남아』 제1권은 동남아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책이 다루는 15세기 중엽부터 17세기말까지의 시기는 동남아역사에서 14세기 이전까지의 소위 “고전(classical) 시대”와 19세기 이후 식민지화 및 근대국민국가형성의 근현대의 중간에 속한다. 위의 기간은 동남아 토착사회가 유럽인들로부터의 기술적,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에 의해 변화되기 전이었으며, 사회의 제반 분야에서 동남아 원주민들이 중심역할을 하면서 중국인, 인도인 등 다른 아시아인들과 함께 활발한 대외적인 무역 및 외교접촉을 주도하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전통사회의 특징들이 일상생활의 전분야에 걸쳐 강력하게 작용했던 시기였는데, 이러한 특징들의 상당한 부분들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리드의 연구는 동남아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가치를 지닌다.

한편 앤써니 리드가 택한 시기의 의미중 특히 무역적인 측면은 책의 부제인 “The Lands below the Winds” (바람밑의 나라들)에서도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 “below the winds”는 이란인 이븐 무함마드 이브라힘(ibn Muhammad Ibrahim)이 1680년대 중엽에 인도, 말레이반도를 거쳐 태국을 방문한 후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동남아의 여러 지역과 중국, 일본 등에 관해 쓴 여행기인 *The Ship of Sulaima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2)에 종종 등장하는 일반적인 지리명칭이다. 이 용어는, 페르시아 원본을 영어로 번역한 John O’Kane이 추측하듯이, 당시 인도양 및 남중국해에서 항해자 및 무역상인들이 사용하던 해양전문용어로서 페르시아, 아라비아 등 중

동지역에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부는 몬순을 따라 도달할 수 있는 모든 나라들을 지칭했다.

호주 국립대학의 동남아역사 교수인 리드는 동남아인들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다양한 문헌들을 자신의 표현대로 “雜食家적인”(omnivorous) 식욕으로써 소화하여 동남아지역에 대해 “전체사”(total history)를 쓰려고 한다. 그리하여 저자는 16세기초부터 19세기말까지 동남아를 방문하여 동남아 토착사회의 여러 면을 소개하는 서양인들의 여행보고서들과 중국인, 아랍인, 페르시아인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인들의 견문기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차문헌들의 틈새를 메워주는 지리학자, 인류학자, 사회학자, 생태학자들의 광범위한 연구들을 참고하여 왕실과 귀족사회의 지배층으로부터 평민, 노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계층을 망라하는 동남아인들의 생활을 폭넓고 상세하게 그리고 있다. 저자는 1450-1680의 시기를 택한 이유중의 하나로서 특히 16, 17세기에 관해 토착어문헌 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의 여행보고서 등 풍부한 일차사료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리드의 책은 크게 다섯 장으로 나뉘어, 첫째 장은 인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 둘째 장은 농업과 식생활 및 건강 등 육체와 관련된 문화, 셋째 장은 주거, 의복, 수공업 등 물질문화, 넷째 장은 전쟁, 부역, 법, 결혼 및 성관계, 출산 및 여성의 역할 등 사회조직들, 다섯째 장은 연극, 무용, 놀이, 문학 등 축제와 오락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상 열거한 제목들에서 이미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저자는 동남아 토착사회의 일상생활의 구석구석을 그리려고 하며, 이때 서술의 초점을 일반백성에게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방향은, 저자 스스로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프랑스의 아날(Annales) 역사학파의 연구방법론을 수용한 것이다. 역사적 사실(fact)의 엄격한 재구성을 강조하는 실증주의 역사학 전통에 비해 아날 역사학파는 역사적 인식에 있어서 문제제기와 가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연구대상으로서 지배층의 활동보다는 일반대중의 삶의 역사에 주안점을 두면서 정치사보다는 경제사 및 사회사적인 측면을 더욱 중시하고, 이때 단기간에 일어난 사건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경제적, 사회적 구조들의 지속 및 변화에 관심을 둔다. 이와 함께, 이 학파의 대표적인 역사학자인 루시앵 페브르(Lucien Febvre)가 강조하는 바처럼, 한 지역에 관한 역사연구에서 사료에만 의지하지 않고 지리학, 인류학, 언어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등 다른 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그 지역에 관한 종합적인, 전체적인(total) 그림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리드는 문화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사료의 빈곤성 문제를 안고 있는 동남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동남아역사 연구에서 위와 같은 아날학파의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방법이 특히 효율적일 것이라고 본다. 동남아의 지리적, 언어적, 종교적 그리고 역사적 경험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리드의 이러한 견해는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 저자

는 그의 연구에서 무엇보다도 페브르의 제자였던 페르낭 브로델 (Fernand Braudel)의 *La Méditerranée et le monde méditerranéen à l'époque de Philippe II* [필립2세 시대의 지중해와 지중해세계] (Paris, 1949)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이 책이 학제간 연구방법에 따라 지중해 지역의 “총체적인 운명들”(collective destinies) 뿐만 아니라 현란한 다양성을 성공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 이러한 연구방법론은 “바람밑의 나라들”(the lands below the winds)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리드의 동남아시아사 연구는 그러나 책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서술에 현란한 색채를 주는 일차문헌들, 특히 여행보고서들을 주요전거로 삼고 있다는 바로 그 점에 약점을 갖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문헌들의 신빙성에 대해 거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며, 자신의 가설과 서술의 틀에 맞추기 위해 여기저기로부터 정보들을 끌어온다.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16, 17세기에 동남아를 방문한 유럽인들의 경우, 토착언어의 이해 등 동남아문화에 관한 사전지식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불과 수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체류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이다. 일시적인, 피상적인 관찰에 근거를 둔 그들의 여행보고서는 그러므로 내용의 정확성이 결여되기가 일쑤며, 또한 토착사회의 정부와 평민의 일상생활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종종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실재를 왜곡하거나 과장하기도 한다. 특히 종교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의 여행기들에서는 토착사회에 대한 묘사의 객관성이 문제시된다. 여행기를 사료로 사용할 때에는 그것을 남긴 자가 어떤 동기로 한 지역을 방문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누구를 위해 여행보고서를 썼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16-18세기에 외국으로 여행했던 유럽인들이 어떠한 원칙들에 따라 관찰대상을 선정하고 여행보고서를 작성했는지를 면밀히 분석한 유스틴 슈타글 (Justin Stagl)의 “Der wohl unterwiesene Passagier: Reisekunst und Gesellschaftsbeschreibung vom 16. bis zum 18. Jahrhundert” [잘 지시받은 여행객 :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여행기술과 사회묘사], in B. I. Krasnobaev, G. Robel, H. Zeman (eds.), *Reisen und Reisebeschreibungen im 18. und 19. Jahrhundert als Quellen der Kulturbeziehungsfor-schung* (Berlin, 1980), pp. 353-384이 좋은 비교의 잣대를 제공한다.

저자가 당대 여행기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것은 17세기 동남아의 전쟁양상에 대한 서술에서 드러난다. 예컨대 그는 동남아 국가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군의 살상과 영토의 획득 등 유럽에서의 전쟁과는 달리, 공포를 쏘아 적에게 위협만 주었으며, 이러한 “천사와 같은” 방식의 전쟁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포로를 붙잡아 노동력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태국의 연대기나 버마 및 말레이 사료 등에 묘사되어 있는 16, 17세기 태국-캄보디아, 태국-버마, 아유타야-치앙마이 간의 전쟁, 말레이반도 남부에서의 전쟁, 특히 아제, 조호르 등과의 전쟁의 경우, 분명히 영토방위의 정치적 목적 역시 확인될 수 있으며, 치열한 살육전의

양상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이와 함께 지적될 수 있는 문제는 저자가 이처럼 제한적 성격을 가진 문헌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의 여러 측면들을 서술할 때 종종 지나친 일반화를 피한다는 점이다. 동남아를 한 지역단위로 보고 이 지역내의 공통된 문화적 속성들을 파악하려는 작업이므로 이같은 시도는 당연한 것이지만, 많은 문화적 요소들이 개개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변동에 따라 필연적으로 다르게 발전한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밖에도 리드는 제3장에서 직물생산, 금은세공, 도자기, 대장일 등 동남아 토착사회의 여러 수공업분야에 관해 언급하면서, 풍부한 밀립을 갖고 있는 동남아의 일상 가정생활에서 오래 전부터 정작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대나무 및 등나무 세공에 대해서는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동남아 전통사회의 형성과정에서 적잖은 역할을 해온 수공업은 경제 및 민속예술과 관련되어 동남아 사회경제사의 연구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분야의 탁월한 연구들로서 구동독의 동남아 역사학자인 Hans-Dieter Kubitscheck, *Südostasien: Völker und Kulturen* [동남아 : 민족과 문화] (Berlin: Akademie-Verlag, 1984)과 구소련의 민족학자 Jan W. Tschesnow, *Historische Ethnographie der Länder Indochinas* [인도차이나 국가들의 역사민족지] (Berlin: Akademie-Verlag, 1985)를 들 수 있다.

이상 부분적으로 언급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앤써니 리드의 책은 동남아역사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광범위한 문헌들을 바탕으로 동남아 전통사회의 일상생활, 물질문화, 사회조직 등에서 많은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이로써 동남아가 최소한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한 지역적 단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15세기 중엽에서 17세기말까지 동남아에 대한 리드의 사회경제사적인 이 연구는 14세기 이전과 18세기-20세기초 동남아시아 연구의 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흥국,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특별연구원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0-693 신림하이츠빌라 4-302

Tel : 880-8513(O), 877-6309(H)